



주요 소식

- 반도체 강국에서, K-건설 강국까지
- 행복도시 소식을 톡톡 튀는 콘텐츠로!
- 세종시, 뉴글로벌 시티의 조건
- Focus 혁신 앤 피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반도체 강국에서, K-건설 강국까지

김형렬 행복청장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바꿔 봐”

어느 기업 총수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의 존망을 걱정하며 한 말은, 나라의 존망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소위 ‘신경영 선언’으로 불리는 이날의 발언 이듬해인 1994년,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1996년 1기가 D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가진 발전 동력을 보면, 날 때부터 ‘금수저’를 쥔 듯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인류 최초로 석유를 발견하였습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를 바탕으로 자동차 등 가파른 산업화를 이뤄낸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러시아 제국 시절 카스피해의 ‘바쿠’에서 미국보다도 많은 석유를 생산하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석유가 매장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지역에서 ‘황금의 샘’을 개발하면서 부를 축적하였고 일본의 근대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도 태평양 전쟁 당시 석유 확보 목적으로 수마트라 섬을 한때 점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날 때부터 ‘흙수저’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넓은 땅덩이와 풍부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오직 인적자원, 즉 기술력뿐입니다. 반도체가 세계적 명성을 떨치기 훨씬 이전인 조선시대에도 ‘달항아리’ 등 세계적 수준의 도자기 기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록 쇠국주의 정책과 일본의 식민지배, 6.25전쟁 등 시련을 거치면서 한때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국토의 대동맥이자 고도 경제성장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전 국민이 함께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 ~ 카이바 고속도로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건설 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렸고, 그 결과 2017년에는 선진국 문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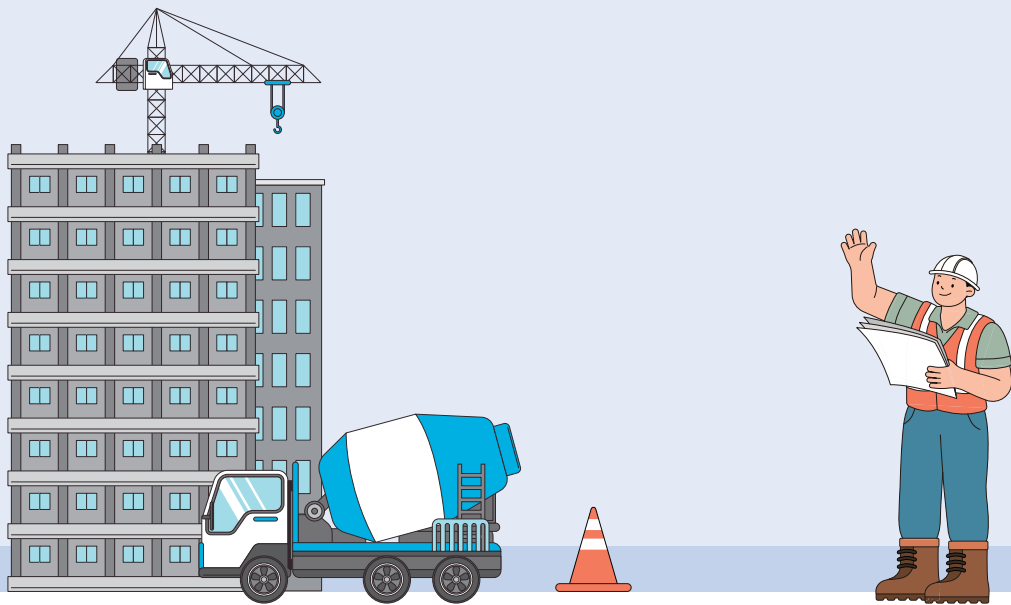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불을 넘은데 이어,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 5만 불에 지속 도전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 탈바꿈했습니다. 2000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를 논의하는 OECD 산하 DAE(개발원조 위원회)의 수원국 명단에서 완전 제외된데 이어, 2010년에는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87년 EDCF(대외 경제협력기금)로 유상원조를 시작한 이래, 현재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등 중점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유상협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도로, 농업용 저수지, 병원 등 20여 개의 EDCF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옛 수도인 ‘다레살렘’의 아가칸 병원과 코코 해변의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다리인 ‘뉴 샬린더 교량(일명 탄자니아 브리지)’은 한국 건설사의 위상을 드높인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역의 교통 혼잡 해결은 물론이고 관광명소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잔지바르의 ‘킨냐시니’ 및 ‘음렘멜레’ 등에서 진행된 농업용저수지와 관개시설 개발사업도 있다. 농지를 천수답에서 2~3모작이 가능한 땅으로 탈바꿈시켜 농업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능력도 원조의 한 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국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원조해 주기는 했으나, 그 품질면에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는 탄자니아에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공무원 초청 글로벌 연수를 추진 중입니다. 수도를 ‘다레살렘’에서 ‘도도마’로 이전 중인 탄자니아에는 안정맞춤인 지원인 셈입니다. ‘다레살렘’은 인도양을 마주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특성으로 냉전시대 강대국의 침공이 우려됐기에, 1973년 신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내륙 중심 부인 ‘도도마’가 낙점되었습니다.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 중인 인도네시아에도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DNA를 이식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연이은 수해와 함께 해마다 23cm 씩 가라앉으며, 향후 해저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도를 보르네오 섬 칼라만탄주 동쪽 해안의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내용의 수도 이전법을 2022년 통과시켰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자도 수도 이전을 포함, 전 정부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수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과 축적된 도시계획 역량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해외원조 및 건설의 역사 중심에는 건설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구촌 곳곳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쌓아 올리는 데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개장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 최고층 건축물입니다. 높이 828m, 층수 163층에 달하는 이 건축물은 K-건설을 세계에 널리 알린 작품입니다. 2022년 3월 개통된 튀르키예 ‘차나칼레 1915 대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입니다. 왕복 6차선에 전체길이 4,608m, 주경간장(주탑간 거리)만 2,023m에 달합니다. 제작에 들어간 강재가 모두 국산이며, 국내 건설사가 완성한 ‘Made in Korea’입니다.

해외원조 뿐만 아니라 K-건설은 지금도 연이은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홍해 인근에 최첨단 미래도시인 ‘네옴시티’를 구상 중입니다. 친환경 주거 및 상업도시인 ‘더 라인’, 팔각형 구조의 최첨단 산업도시인 ‘옥타곤’ 및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인 ‘트로제나’로 계획된 바, 지난해 12월 ‘더 라인’의 지하터널 사업 중 우선 발주된 일부구간을 국내 건설사가 수주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사우디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72억 불에 달하는 가스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한·사우디 정상외교의 결실이자 ‘1호 영입맨’ 대통령과 국내 기업의 원팀 효과입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도 K-건설의 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전쟁 종료 직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이라크가 바그다드 동남쪽에 건설하는 이 도시는 국내 건설사가 수주하여 건설하던 중 미수금 문제로 2022년 10월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위축과 건설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 더욱 값집니다.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개척할 시장이 많습니다. 특히, 민관협력 투자개발(PPP)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인도 시장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미 정부와 국내 건설사가 민관합동 원팀이 되어 PPP사업 성과를 이뤄낸 전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비 지원이 수주로 연결된 ‘차나칼레 1915 대교’가 그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할 정부의 지원과 세계적 수준의 K-건설이 융합되어, K-건설이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비상하게 할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도체 강국에 이어 건설강국으로 불리는, K-건설의 르네상스가 이뤄질 날을 그려봅니다.



행복도시 소식을 톡톡 튀는 콘텐츠로!

행복청, 2024년 '행복기자단' 발대식 개최

대학생, 프리랜서, 주부 등 다양한 직업, 지역, 연령으로 15명 구성

행복청은 제16기 행복청 정책기자단인 '행복기자단'이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사업을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홍보하고자 2009년부터 정책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해왔으며, 정책기자단은 행복도시 주요 정책과 소식을 취재해 기사,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 '행복기자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SNS 운영 경험, 콘텐츠 기획 능력 등을 토대로 선발하였으며, 20대에서 40대의 대학생, 프리랜서, 주부 등 다양한 직업, 연령, 지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자단 인원은 15명으로 작년 대비 50%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발대식 행사는 기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기자단 위촉장 및 기자증 수여, 기자단과의 간담회, 올해 '행복기자단' 운영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복기자단'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행복청 공식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복기자단의 창의적인 시각과 열정으로 행복도시사업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되도록 많은 활동을 당부한다"면서,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미래 비전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행복청, 스타도슨트에게 문화도시의 길을 묻다

'도슨트계의 아이돌' 정우철 전시해설가 초빙, 제2회 행복 정책아카데미 개최

행복도시의 우수한 문화·예술 기반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문화도시 도약 제언



행복청은 4월 15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과 한국도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단지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행복 정책아카데미는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도슨트계의 아이돌'로 유명한 정우철 전시해설가가 '빈센트 반

고흐, 가장 밝게 빛나는 열정의 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특강에서 정우철 전시해설가는 "그림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를 더함으로써 관객이 감동하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중심의 '도슨트(docent)'가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성장한 사례처럼, 행복 도시에서도 우수한 문화·예술기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 콘텐츠를 함께 고민한다면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참석하여 "21세기 문화·예술은 개인들의 여가생활을 넘어 도시·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신성장 핵심 분야"라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직원들도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문화·예술기반 건설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하는 감동 콘텐츠를 발굴·적용한다면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부, 행복도시~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한 걸음 더'

도시 간 접근성 향상으로 행복도시~대전 "같은 생활권" 향유
광역교통망, 수도권 버금가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첫 단추'

행복청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심 역할을 위해 행복도시와 인접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공동 생활권 형성과 지역 동반성장 기반 마련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손꼽히는 만큼, 충청권의 거점을 연결하는 행복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을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총 21개 노선, 164.7km에 이릅니다. 2030년까지 모든 노선이 개통되면 행복도시와 대전, 충청북·남도를 잇는 8개의 축이 주요 고속도로와 KTX, 공항과 연계되어 전국을 2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도시 세종~대전, 배후인구 약 183만의 '메갈로폴리스'

행복도시와 대전은 인접 도시 간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두 곳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 구간통행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통행량의 약 80%가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와 대전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두 도시를 잇는 것은 '행복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와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2개 구간입니다. 도로 개통 후 행복도시와 대전 두 도심 간 차량 이동 시간이 10~20분 정도로 좁혀지는 등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들 도로를 기반으로 'KTX 오송역~행복도시~대전역'과 'KTX 오송역~행복도시~대전유성'을 오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마련되고 광역 환승할인요금제가 도입되면서 광역대중교통 인프라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행복도시~대전을 더욱 빠르고 가깝게, 추가 3개 노선 구축 중

이밖에도 행복도시와 대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광역도로 사업이 현재 3개 구간에서 추진 중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예정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는 '행복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와 이어지면서 행복도시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직통으로 연결, 이용자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RT 등 대중교통을 통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대전 대덕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만나는 '회덕IC 연결도로' 사업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회덕IC가 신설되면 교통량 과다로 혼잡했던 신탄진IC의 통행여건이 개선되고 행복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행복도시와 대전을 잇는 새로운 연결축이 될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도 타당성재조사가 통과 되면 설계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기존 '행복도시~대전유성'과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의 교통 혼잡 구간의 대체경로로서 운전자의 행복도시~대전 간 통행 경로를 다양화시켜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대전 권역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전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렬 청장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단순히 행복도시와 인접 도시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광역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및 휴양과 같은 도시기능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 'K-도시'로 세계 수출길 오른다

행복청,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수도이전 협력관계 맺고 '행복도시 모델' 수출
도로·교통·건설·물 관리 등 우수 기술력 보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습니다.”

1973년 수도 이전 계획 발표 이후 50년에 걸쳐 도도마를 새로운 수도로 개발 중인 탄자니아의 마잘리와 총리는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행복도시를 수도이전 성공모델로 점찍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행복도시에 방문하였습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이집트·몽골 등 수도이전을 추진 중인 여러 나라에서 행복도시 건설 관련 경험 전수 및 컨설팅 등 협력을 요청하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는 2019년, 그리고 이집트·몽골과는 2022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 현재는 호혜적 사업모델을 발굴 중입니다. 또, 금년 1월에는 김형렬 청장이 직접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마잘리와 총리와 면담하고, 수도이전 및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K-도시' 및 'K-건설기술'의 수출과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대륙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만 40조 원...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초대형 수주 기회'

인도네시아는 서울의 4.2배 크기의 열대우림에 2045년까지 인구 2백만 규모의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 중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우리 돈 40조 원에 이르는 이 대규모 건설 사업은 부지조성부터 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 주택공급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국가 간 협력관계를 맺고 각종 ODA 사업 추진 및 도로·교통·물 관리 같은 다양한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행복청 역할이 컸습니다.”

현재 신수도 침매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인니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말합니다. “해외 대형 국책사업의 수주는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지 정부 인사나 관계자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소개하거나, 현지에 협력관을 파견하여 민간수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건설 및 인허가 관련 법제도와 계약 관습 등을 코칭

해주는 등 적극 지원해주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이 최종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침매터널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8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팀코리아’를 구성, 한국 기업의 특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업의 사업 참여의사를 인도네시아 측에 타진해보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주)유신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여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바탕으로 ‘신수도 하수처리장 설계검토 사업’, ‘신수도 Sepaku 정수장 실시설계 검토 사업’ 등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코리아는 내년부터 신수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2단계에 접어들에 따라 민자사업 수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몽골과도 협력 MOU 체결...

협력사업 발굴 등 후속조치 착수

수도 카이로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골머리를 앓던 이집트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아직 도시명이 정해지지 않은 신행정수도는 카이로 동쪽 약 45km 떨어진 지역에 2050년까지 최대 인구 650만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지난해 주요 정부기관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본격적인 주민입주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도시개발이 행복도시의 발전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만큼, 이집트 정부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작년 4월, 이집트 수도건설 추진 동향과 사업여건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 올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심각한 교통체증과 난개발,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신도시 개발과 행정기능 이전입니다. 여기에 몽골 총리가 행복도시 벤치마킹을 지시, 2022년 건설도시개발부 장·차관이 행복청을 방문하며 양국 간 협력이 심도 깊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 한-몽 도시건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도시계획 기술 전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금년 1월 탄자니아와 협력 MOU 체결, 아프리카대륙 진출 '발판' 기대

탄자니아의 도도마는 법률상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1의 도시이자 옛 수도인 다레살람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습니다. 이에 탄자니아 정부는 최근 도도마를 정부도시(Government City)로 개발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스마트시티 등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행복도시의 선도적 사례에 주목, 국가 간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행복도시를 방문한 탄자니아 마잘리와 총리는 무엇보다 쾌적하고 우수한 도시경관에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년 1월 탄자니아 현지에서 열린 김형렬 청장과의 면담자리에서도 살기 좋은 도도마 개발을 위해 공무원 초청연수 등 본격적인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자니아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진 출장에서 행복청 등 한국 대표단은 탄 총리와의 면담 외에도 도시건설 협력 MOU 체결, 신수도 협력 공동세미나 개최 등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지고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관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협력분야 및 사업모델 발굴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행복청 'K-도시' 수출을 계기로 우리 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

2019년부터 행복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 'K-도시'인 행복도시 모델을 수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이집트·몽골·탄자니아 4개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정부 간 협력 MOU 6건, 고위급 협력회의 6회, 협력국 공무원 연수 4회, 한국기업 진출을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11회, 경제혁신파트너프로그램(기재부)·스마트도시계획(국토부) 등 5건의 ODA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도시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 풍부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선도도시로서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국가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력네트워크와 소통채널 또한 정부 간(G2G)·민관 간(B2G)·민간 간(B2B)으로 확대되며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청은 국내외 팀코리아 활동 및 다양한 협력포럼·간담회·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현지 사업여건 및 추진현황을 국내에 수시 공유하고, 협력국에는 현지 접목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특화 분야 등을 소개함으로써 민간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향후 수도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민간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주한 수도이전협력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행복도시 건설현황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뉴글로벌 시티의 조건”



김형렬 행복청장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하나”,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유리병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와 프림, 설탕을 기호에 맞춰 조합해 마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스턴트 커피시장을 밀어낸 새로운 발명품이 믹스커피(mix coffee)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식품회사가 197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외국의 바리스타들도 감탄한 바, 편리함과 맛으로 커피 시장을 단숨에 장악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특히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현대 도시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개발이 쉬운 교외로의 팽창과 직주 분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있는데, 도시에도 믹스(mix)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 도시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상업, 문화 및 주거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결합한 도심복합개발(Mixed-use development)에 주목해 왔습니다. 상주인구를 늘리고 직주근접을 통해 24시간 사람들이 활동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2023년 오픈한 일본 동경의 ‘아자부다이 힐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약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업무, 상업 및 주거는 물론 녹지공간까지 복합화해 3백여 명이 거주하던 주거지역에서 낮에는 2만 명, 밤에는 3천 5백 명이 거주하며 연간 3천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변신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명소인 ‘포츠다머 플라츠’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공터로 방치된 지역에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상업, 문화 및 주거 등을 집약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최지로 대표되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다채로운 건축물들을 보기 위해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의도 ‘파크원’은 공실 위기와 상권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던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약 2조 6천억 원을 들여 초고층 업무시설과 ‘더 현대’ 및

호텔 등을 결합했습니다. 개장초기 2020년에는 여의도 업무 시설 공실률이 14.5%였으나, 현재는 1% 미만이며 지역의 상권도 활력이 넘칩니다.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해 온 도심 복합개발 사업들은 주로 낮은 사업성 지역에 주택건설 위주로 진행되어 복합개발 및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도 수요가 많은 도심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행복도시인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대전, 청주 등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과 상업 및 문화 시설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유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모리빌딩 CEO ‘쓰지 신고’는 “일본은 미국을 못 이겨도, 동경은 뉴욕을 누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청은 복합용도에 대한 개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도시 복합개발이 세계를 사로잡은 믹스커피와 같은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자 합니다.



“더 똑똑해지는 도시, 더 행복해지는 시민” 행복도시-세종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엄정희 차장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가 열렸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 지능(AI)’,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최첨단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투명TV, 집사로봇 같은 디지털 기기 및 가전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등 미래형 모빌리티, 건강·교육·환경 등 산업 전반에 AI기술이 접목되면서 ‘인공 지능 시대’의 원년을 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신기술은 이제 도시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이른바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터전을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종전에는 없던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일까요? 언뜻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성과 편의성, 생산성 향상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기술적 측면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시철학과 가치가 배제된 채 고도로 발달하기만 한 기술은 언제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처럼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반드시 ‘사람중심’이라는 도시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전략도시로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복도시는 인구 50만의 명품 자족도시를 기반으로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시티의 경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플랫폼·데이터·연결형·자율 지능·시민참여형 등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스마트인프라가

조성 중이며, 현재는 도시통합정보센터·자가통신망 구축 등 1·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능형CCTV·조정밀버스 정보시스템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3단계 사업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은 신도심 격인 행복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행복도시-세종형 스마트시티(이하 세종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기준 마련과 국가시범 도시 추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스마트서비스 발굴 등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종 스마트 시티의 역할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도입의 실험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으로서 도시기능을 더욱 똑똑하게 진화시킬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지난해 영국의 경제분석 전문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전스 유닛(EIU)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오스트 리아의 빈을 선정했습니다. 안전성과 의료, 문화 및 환경, 교육, 인프라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치안, 공공의료 및 헬스 케어, 재해·재난대응,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여가시설, 공공 및 사설교육, 교통·통신·주택·에너지 등 기반시설 수준 등이 세부지표로 꼽혔 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역사 같은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마트기술의 도입으로 발전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들입니다. 앞으로 세종 스마트시티가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Focus 혁신 앤 피플

하하호호 정부혁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위한 행복청 혁신부대!



한경희 과장

소개

- 담당업무: 혁신행정담당관실 업무 총괄
- 별명: 비밀인데.....낮과밤?(낮에는 한과장 밤에는 ???)
- ENFJ: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꾼

Q. 직원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직원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힘들 때 힘을 줄 수 있는 리더

Q. 근무시간 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PT하면서 종량올리기

정부혁신을 한마디로!

행복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열쇠

올해 업무추진 각오!

혁신은 다름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정부혁신 25개 과제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임석훈 사무관

소개

- 담당업무: 조직, 법제 담당
- 별명: 한꽃지아(한때는 꽃미남, 지금은 아저씨)
- INFP: 배려하고 참을성 많은 경청자

Q. 내가 끈대라고 생각될 때는?

신입직원에게 호구조사하고 있을 때

Q.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동료나 상사는?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었던 상사
긍정적이고 항상 낙천적이었던 동료

정부혁신을 한마디로!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한 정부의 노력

올해 업무추진 각오!

그동안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현장, 협업,
행동, 해결 4대 원칙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청희 주무관

소개

- 담당업무: 조직, 정부혁신, 적극행정 담당
- 별명: 알허다허(알고보니 허당, 다시봐도 허당)
- INTJ: 논리적이고 성실한 문제해결사

Q. 출근할 때 하는 생각?

원래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요즘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어떻게 할까?

Q. 직장생활 중 가장 힘든일과 이유?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한다는 점... 둘 다 잘하고 싶어서

정부혁신을 한마디로!

협력과 소통으로, 정부의 변화를 이끄는 힘

올해 업무추진 각오!

2024년 정부혁신, 적극행정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세대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과 존중으로
행복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행복청 제1회 반부패·청렴 협의회 개최

행복청은 4월 1일(월), 행복청 청렴정책 총괄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청·차장을 포함하여, 각 국장과
부서장 등 간부진들로 구성된 반부패·청렴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 협의회는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4년도 반부패
근절 캠페인과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 할 것입니다.

알쏭
달쏭우리말
바르게 쓰기

행복이와 한글교시(4교시)

1. '가탈지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생기다(O)
-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X)
2. '알아맞히다'와 '알아맞추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다 (O) -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다 (X)

속

제

코

너

알듯말듯 우리 속담 알아보기

- ① 정답도 길면 [?] [?]이 생긴다
- ② 얻은 죽에 [?] [?]이(가) 아프다

사자성어 배워가기

형 설 지 공

(螢) (雪) (之) (功)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

* 3교시 속제 코너 정답

1번 : 발등

2번 : 점심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조선 중기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초려 이유태 (1670-1684)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초려 선생의 묘소 일원을 조성한 공원입니다. 또한 시민 교육과 전통 행사 등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서당·서예 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는 이 공원은 어디일까요?



초성인트

대리인

속제 O, X 및 빈칸채우기 정답은 다 작성해서 행복청 대변인실 naaccadmin@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CHUNGCHONG 2027 FISU WORLD UNIVERSITY GAMES SUMMER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2027.08.01 ~ 08.12 (12일간)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될 수 있습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복지부
시도 보건소·건강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공단 | 1577-1000

☎ 119

비대면 진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피해신고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129-연결 후 8번

산림청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불철 산불조심기간 (2.1.~5.15.)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 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 화기 사용 후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쓰레기, 건초, 건축자재 등의 가연물은
도도록 집에서 먼 곳에 보관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행복청
SNS 채널

📘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psejong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